

2018 여름휴가 여행 조사 - 여행 경험 및 인기도 -

- ▶ '18년 10월 17일(수) 배포
- ▶ 자료 총 3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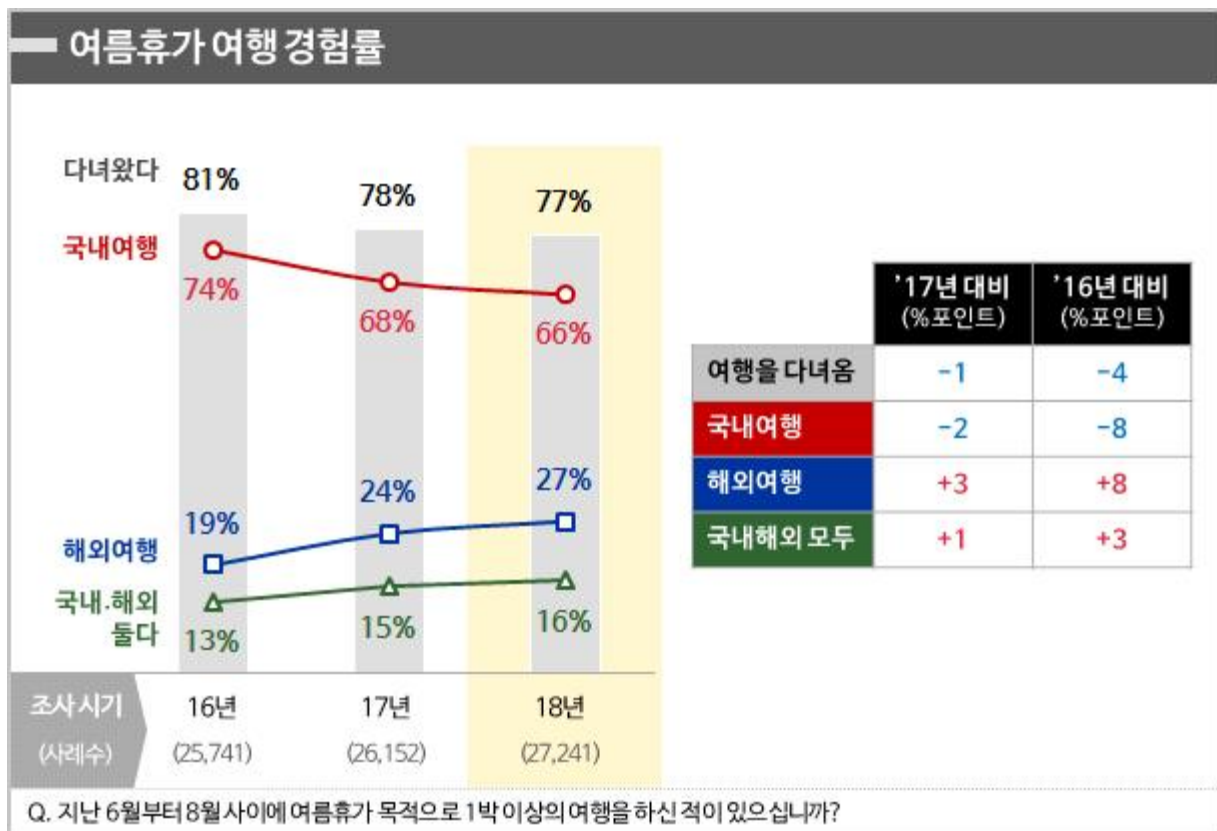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여름휴가 여행, 바다·산보다는 대도시에서 휴식 늘어

- 여름휴가 여행 국내는 감소, 해외는 증가
- 자연·역사 등 볼거리보다는 쉴거리와 먹거리
- 근거리 여행 선호로 강원도 뜨고, 제주도 줄고

지난 6~8월, 3개월 사이에 네 명 중 세 명은 1박 이상의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은 2년 연속 하락세인 반면 해외여행은 계속 증가세이다. 국내에서의 여름휴가는 원거리의 자연보다는 근거리 도시의 위락시설, 볼거리 보다는 쉴거리와 먹거리를 찾았다. 근거리 여행지 선호와 함께 기록적인 폭염으로 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이 많은 강원도와 수도권은 득을 봤고, 해외여행 증가로 제주도는 손실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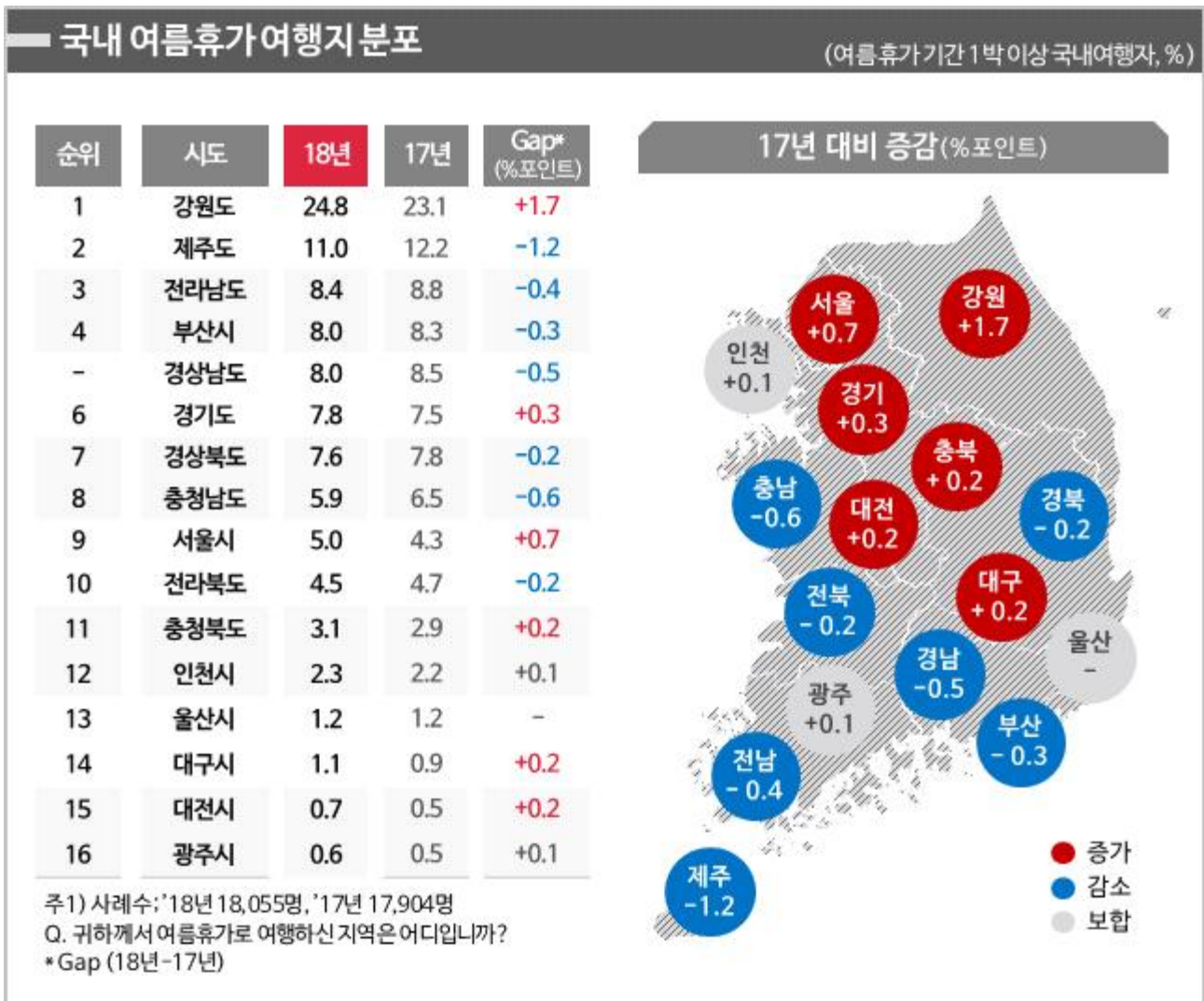
[그림1] 여름휴가 여행 경험률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여름휴가 여행조사(2만7천241명)에서 올 여름휴가 기간인 6~8월, 1박 이상의 국내여행 경험은 66%, 해외여행은 27%였으며, 국내·해외 모두를 다녀온 사람도 16%였다. 작년보다 국내여행은 2%포인트 줄고, 반대로 해외여행은 3%포인트 늘었으며, 국내와 해외 모두 다녀왔다는 대답도 1%포인트 늘었다. 국내 여름휴가의 감소와 해외여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그림1].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강원도(24.8%)로 2위 제주도(11.0%)를 2배 이상의 차이로 앞섰다.[그림2] 작년에 비한 점유율 증가도 1.7%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과의 점유율 변화를 보면 증가 1위는 강원(1.7%포인트), 서울(0.7%포인트), 경기도(0.3%포인트)이다. 이는 전국민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이 근거리 여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등의 내륙지역 대도시는 증가했고, 제주, 전남, 부산, 경남, 충남 등의 바다/해변 중심의 지역은 모두 감소했다. 이는 내륙 대도시 거주자들이 먼 바다를 찾기 보다는 도시 내 휴가를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그림2] 국내 여름휴가 여행지 분포



실제 국내휴가여행의 중심장소로의 지적은 ‘바다/해변’이 36.9%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나, 작년 대비 1.2%포인트 감소했다. 다음은 ‘리조트, 호텔 등 위락시설’이 17.3%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상승하며, 처음으로 ‘산/계곡’(16.2%)을 밀어내고 2위를 기록했다. 금년도 여름휴가는 시원하고 편안한 실내시설이 인기 피서지였음을 보여주며, 여기에는 7~8월의 기록적인 폭염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휴가 기간은 여전히 국내여행 최대 성수기이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의 도입과 휴가 사용촉진 정책으로 여름에 집중되었던 여행수요가 분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름휴가 여행의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 극심했던 폭염도 큰 변수였다.

• 연구 및 조사방법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기획하여 지난 6~8월 사이에 다녀온 1박이상의 여름휴가 여행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조사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80만 IBP(Invitation Based Panel)를 표본틀로 하여 2만7천241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추출은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했다. 자료수집은 이메일과 모바일을 사용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johw@consumerinsight.kr 02)6004-7631